



시화지역 통합문화관

Sihwa Unification Culture Center

당선작 _ 김상식 · 김용미 정회원
(주)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

대지위치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작은가리섬 시화 조력발전소 부지 내
지역지구	도시지구, 자연녹지지역
주요용도	홍보관
대지면적	1,895.94㎡
건축면적	1,895.94㎡
연면적	3,684.25㎡
건폐율	19.96%
용적률	34.60%
규모	지하 1층, 지상 3층
구조	철골철근콘크리트
설계담당	조진홍, 김동진, 박민성, 김정진



본 현상 설계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와 지역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통합 문화관 건립계획으로, 시화방조제 중간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평탄한 대지가 제시되었다. 계획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서의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역동적인 형태와,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다채롭게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시나리오 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.

형태적 상징성 : 달이 만들어 내는 무한의 에너지

조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달의 형상을 전망대의 모티브로 삼아 시화호를 밝히는 달(전망대)에서 비롯하는 조력의 무한한 에너지(통합문화관)라는 스토리텔링에서부터 형태 개념을 도출했다.

공간 시나리오 : 낙수 소리를 찾아가는 여정

섬 내에 입지하는 휴게소로부터 각각의 특징을 가진 연속적인 외부공간을 구성하여 바다와 함께하는 산책로를 구성했으며, 산책로의 정점인 낙수소리 정원에서 조력발전소를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소리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.

분동계획을 통한 전망대 활용의 극대화

영화상영관과 레스토랑, 전망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전시관 운영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별도 운영 및 관리에 유리하도록 계획하였다.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진입축을 중심으로 통합문화관은 조력발전소 내의 갤러리와 근접하게 배치하여 주도로에서의 정면성과 전시 동선의 효율성을 의도했으며, 동시에 전망대동은 바다에 가까이 접하도록 계획하였다.

배치계획

- 작은가리섬 내의 휴게소로부터 바다와 조력발전소를 향해 열리는 진입축을 형성.
- 진입축을 중심으로 바다 측에 전망대동 및 편의 시설을 배치하여 바다를 향해 열린 휴게공간 조성
- 도로 방향에 통합문화관을 배치하여 주도로에서의 정면성과 조력발전소와의 연계성 확보

평면계획

- 1층: 홀을 중심으로 4D영상관 및 다목적 강당을 계획하여 각종 행사에 대응, 부출입구 계획을 통한 조력발전소 관리동과의 연계 및 기능별 동선 분리
- 2층: 건축 형태와 함께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열린 공간으로 전시공간 계획
- 3층: 남향으로 배치된 쾌적한 사무공간 및 외부 휴게공간 조성
- 전망대: 중심에 코어를 두며 사방으로 열린 구조로 조망 조건 극대화, 저층부에 레스토랑,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하여 야간 운영에 용이하도록 계획

입면계획

- 주도로 방향에서는 강한 상징성을 가지며 보행진입방향에서는 바다를 향해 개방된 이중적 입면계획
- 티타늄이연판, 목재, 돌, U-Glass 등 해풍에 견딜 수 있는 자연재료 이용

